

90.2.24

체면치레 혼수 과소비 부추겨

결혼비용 남·여 평균 7백75만·1천57만원

소비자보호원 조사

평균 결혼비용은 남자 7백75만원, 여자 1천57만원으로 양가에서 모두 1천8백32만원이 드는 데다 주거마련 비용까지 더해져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살림마련 비용보다 예물과 예단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등 체면치레를 위한 과다혼수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는 사례(남자 22.5%·여자 18.4%)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 짜리 밍크 코트·홍콩계 자수 보료세트 등을 예단으로 하는 과시적 소비풍조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이 지난해 12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도시 신혼남녀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혼수실태' 조사 결과, 결혼비용으로 여자는 5백만~1천만원(48.3%)이 가장 많았고 1천만~2천만원이 31%, 최고 7천6백만원을 썼고 남

자는 5백만~1천만원(43.7%) 5백만원 이하(33.1%) 최고 4천3백30만원을 썼다.

예단의 범위는 남자쪽은 대부분 처가의 직계가족에게만 하는 반면 여자쪽은 시가의 3, 4촌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 예물 비용으로 3천만원까지 든 경우도 있었다.

여자의 혼수비용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특히 많이 들었다. 절반 정도가 전체 혼인비용의 75% 이상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고 스스로 마련한 경우는 23.4%에 불과했다. 교육수준이 높고 중상류 계층일수록 부모 의존도가 높았다.

“과다혼수·호화결혼식 바로잡자”

여성계, 주부대회·시범발표회등 활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혼수, 호화 결혼식을 바로 잡자는 여성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수)는 6일 '망국 혼수 시어머니 힘으로 막아보자' 주제로 전국주부대회를 열고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선 어른 세대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혼수 간소화 결심이 과다혼수를 막는 지름길”이라면서 “주부들이 힘을 모아 망국 혼수를 막아보자”고 결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바람직한 혼례 및 혼수지침서'도 발표했다

데, 함은 청·홍 옷감 1벌씩, 혼서지(신랑 아버지가 신부집에 보내는 편지)로 간소하게 꾸려 함값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함꾼 대신 신랑 형제나 가까운 친지가 정중하게 전달할 것을 권했다. 지나친 과소비로 흐르고 있는 예단은 그 범위를 신

주부들 힘모아 망국병 추방을

랑 부모·형제로 좁혀 시부모에게 한복 한벌씩, 형제에게는 양말 또는 버선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결혼 예물은 신랑 신부가 18급 반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결혼 예복도 신랑은 평상복, 신부는 한복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대한YWCA연합회도 지난 11월26일 '바람직한 결혼식' 시범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한YWCA는 바람직한 결혼식 절차로 △신부가 친정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와 먼저 입장한 신랑에게 넘겨지는 대신 신랑 신부의 동시 입장 △신랑 신부의 직접 혼인서약 낭독 △양가 부모에게 드리는 인사말 등 '신랑 신부가 주체가 되는 결혼식'

모형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여성의 전화·여성노동자회 등도 결혼식장에서 치르는 틀에 박힌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 신부의 동시입장 또는 일터 현장에서 치른 결혼식, 순한 국식으로 마련한 결혼식 사례들을 <베를> <여성노동자> 등 소식지에 소개하고 있다.

90.2.9